

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5.11.14.(금) 12시

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용해 '국내 스타트업 시애틀 진출' 돋는다

- 13일 미국 시애틀에서 8개 기업과 현지 인사 50여명 참석...60건 이상의 투자 상담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국내 인공지능, 친환경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‘한국 스타트업 시애틀 시연회(K-Startup Demoday in Seattle)’를 1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‘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, 작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바 있다.
- 시연회에는 인공지능, 친환경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개사*와 재외동포·현지 벤처투자회사, 지역 인사 등 50여명이 참가했으며, 스타트업-투자 설명과 60건 이상의 1:1 투자 상담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.
* 닥터테일, 주식회사 에이머슬리, 일만백만, 레티튜, 주식회사 엑스크루, 크로스허브, 에이트테크, 더프레쉬모어주식회사 등
- 이번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,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, 창발*, K-스타트업센터 시애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.
* 시애틀 지역 한인 IT분야 종사자 네트워크
- 재외동포청은 “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우수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장	이경아	032-585-3220
		담당자	주무관	이영복	032-585-3227